

07 vol.468
2021 JULY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4 네 꿈을 펼쳐라
천안동성중학교 책쓰기동아리 '삼다(三多)'
읽고 토론하며 책을 쓰는 아이들!

07 교육포커스
코로나19 시대, 아동·청소년 결식 실태
우리 아이들, 밥은 잘 먹고 있나요?

42 교육웹툰
우리 선생님은 인공지능 전문가

44 정책을 말하다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교육부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68 **2021 JULY**

07
교육포커스
코로나19 시대, 아동·청소년 결식 실태
우리 아이들, 밥은 잘 먹고 있나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의식주는 아동·청소년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청소년의 결식 경험이 증가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청소년의 결식 실태와 그 원인에 관해 살펴보고, 결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4
특별기획
디지털 세대에게 '책'으로 말 걸기
최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원격수업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손안의 스마트폰 세상에 흠뻑 빠져 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손안의 세상에 갇힌 우리 아이들을 책의 세상, 독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손안의 세상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들
디지털 시대,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온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_ 책 읽기에서 책 쓰기까지
"친구야 책방 가자!"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CONTENTS

07
vol.468 **2021** JULY



"우리 함께 책 읽어요."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손안의 스마트폰 세상에 무척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3명 중 1명은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소년 여러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진은 천안동성중학교 책쓰기동아리 '삼다' 학생들의 모습

발행일 2021년 7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 **특별기획**
디지털 세대에게 '책'으로 말 걸기
손안의 세상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들
디지털 시대,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온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_ 책 읽기에서 책 쓰기까지
"친구야 책방 가자!"

38 **진로직업인**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전문상담사_ 한우서 서울스마트쉼센터 수석상담사
'스마트폰 압수' 대신 소통·공감이 필요



04 **네 꿈을 펼쳐라**
천안동성중학교 책쓰기동아리 '삼다(三多)'
읽고 토론하며 책을 쓰는 아이들!

07 **교육포커스**
코로나19 시대, 아동·청소년 결식 실태
우리 아이들, 밥은 잘 먹고 있나요?

12 **꿈이 영그는 현장**
교복으로 재탄생한 한복
"예쁜데 편하기까지"

16 **삶과 교육**
윤미정 경남 진영장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엄마선생님! 오늘도 바깥놀이해요"

20 **교실혁명**
옥효진 부산 송수초등학교 교사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 이야기

42 **교육웹툰**
우리 선생님은 인공지능 전문가



44 **정책을 말하다**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47 **교육자치시대**
전라북도교육청_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

50 **이달의 교육뉴스**
코로나19로 학업성취도·학교생활 행복도 하락 外

52 **교육상담실**
비대면 선호하는 아이들, 사회성 기르는 방법은?

54 **일상의 쉼표**
예산, 어미의 품에 안기다

58 **이야기 인문학**
'부캐' 열풍, 여러 가면을 쓰는 사람들

61 **명예기자 리포트**
나도 그림 그릴 거예요! 外

64 **숫자로 읽는 교육**
27.6시간(주 평균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

천안동성중학교
책쓰기동아리
'삼다(三多)'

읽고 토론하며 책을 쓰는 아이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글은 어설프고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학생들의 글은 결코 미숙하거나 어설프지 않다. 때론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깊은 사유가 묻어나는 글을 쓰기도 하며 그들의 내면과 성장통을 드러내기도 한다. 청소년기 책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면을 성찰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고 있는 천안동성중학교 책쓰기동아리 삼다 학생들을 만났다.

글 _ 이순이 편집장

글쓰기를 좋아하는 글쟁이들

'삼다(三多)'는 책을 사랑하는 학생이 모여 독서와 토론, 책 쓰기를 하는 동아리이다. 2015년부터 책쓰기동아리를 지도해온 한경화(국어과) 교사는 "문해력과 독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수업과 글쓰기를 활용한 창의적 생각 펼치기 수업을 해왔다."라며 "그러다 책 쓰기 관련 연수를 접하면서 늘 해오던 독서활동에 책 쓰기라는 목표를 만나 불을 지폈다."라고 설명한다.

동아리 첫 시간에 책 출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쓰고 싶은 주제를 토론으로 정한 후에는 각자 쓸 글의 출간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목차를 완성한다. 글쓰기는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함으로써 목표한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인물 설정, 인물의 성격과 배경, 줄거리 생성, 갈등 요소 등 이야기가 지녀야 할 요소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계속 점검한다. 완성원고는 동아리원끼리 짝을 지어 상호검토하고 1차 수정 보완 후에는 한 교사가 최종검토한다. 한 교사의 지도로 한 명 한 명 글쓰기 능력을 키운 삼다 학생들은 2016년에 꿈, 왕따, 성(性), 이성교제, 가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 <열다섯 우리들의 꿈>(저자 책쓰기동아리 삼다)을 출간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책 쓰기 프로젝트에 선정,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들은 자비 부담 없이 출간할 수 있었다. 같은 해 한경화 교사는 삼다 학생들의 글쓰기 지도과정을 담아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를 펴냈다. 이렇게 시작된 삼다의 책 쓰기 활동은 후배들에게 전통처럼 이어졌고 <글을 쓴다는 것>, <학교에서 만난 기적>, <책을 쓰는 아이들> 등을 펴낼 수 있었다.

1 청소년기 책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면을 성찰하며 사유의 폭을 넓히고 있는 책쓰기동아리 '삼다' 학생들. 손안의 책은 그동안 한경화 지도교사와 삼다 학생들이 펴낸 작품들이다.



많이 읽고 많이 토론하며 많이 써보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삼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책을 좋아하는 글쟁이들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 자율동아리 시간에 도서관에 모여 함께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원격수업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책쓰기동아리 삼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꾸준히 진행해온 독서와 토론은 자율독서로 전환되었으며 글쓰기 활동은

SNS와 온라인을 통해 글감과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과연 글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조바심이 생겼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글을 써왔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세상의 빛을 본 작품이 <책을 쓰는 아이들>이다. 이 책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한 창작 소설부터 친구와의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 스페인에서의 도전기를 담은 이야기, 시계를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과 행복한 삶을 위한 고민 등 청소년의 고민과 상상력이 가득 담겨있다.

글쓰기는 삶을 바꾸는 열쇠

한경화 교사는 “글쓰기는 삶을 바꾸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글에 담고 그 글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삶도 가꿀 수 있다는 것.

엄마의 삶과 사춘기를 주제로 글을 쓴 이아현 학생은 “글을 쓰는 동안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도 해봤다. 이런 경험이 작품을 쓰는 데 도움이 됐다. 작품에는 내가 바라는 엄마의 모습도 투영됐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이렇게 내 글이 책으로 나와 뿌듯하다.”라고 말한다.

주변의 영향으로 친구와 다투게 된 일을 소설로 썼다는 김영성 학생은 “실제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글을 쓰다 보니 글에 나의 입장만 담겨있더라.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원래 생각했던 원고보다 길어졌지만, 싸웠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친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공감해줬다.”라고 설명한다.

올해에도 삼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과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글을 쓰고 있다. 또한, 갈등을 주제로 이미 집필이 마무리된 삼다 학생들의 작품을 다듬어 올해 여섯 번째 책을 출간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Mini Talk



이아현 3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생각한 대로 쓰면 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가 지녀야 할 요소 등을 익히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다에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고 글을 쓰면서 ‘공감’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박의채 3학년



저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요. 사람이 아닌 존재(주인공)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아픔을 겪고 견뎌 나가는 과정을 글로 썼는데, 주인공의 감정을 이해하고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퇴고 후에 제가 쓴 글을 쭉 읽어봤는데, 참 잘 쓴 글 같아요. 하하



이수아 3학년

내 생각을 이야기로 펼쳐낼 수 있다는 것이 글쓰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준비하고 있던 스페인 유학이 물거품이 되면서 스페인 유학 생활을 상상하며 글을 썼어요. 글이 막히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과 대화하거나 카톡으로 조언을 들으며 고쳐 쓰면서 글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김영성 3학년



저는 교사를 하면서 글을 쓰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음악이나 미술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글은 창의성을 발휘하면 무궁무진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책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린 새로운 작품을 만나면 ‘참신하네’라고 말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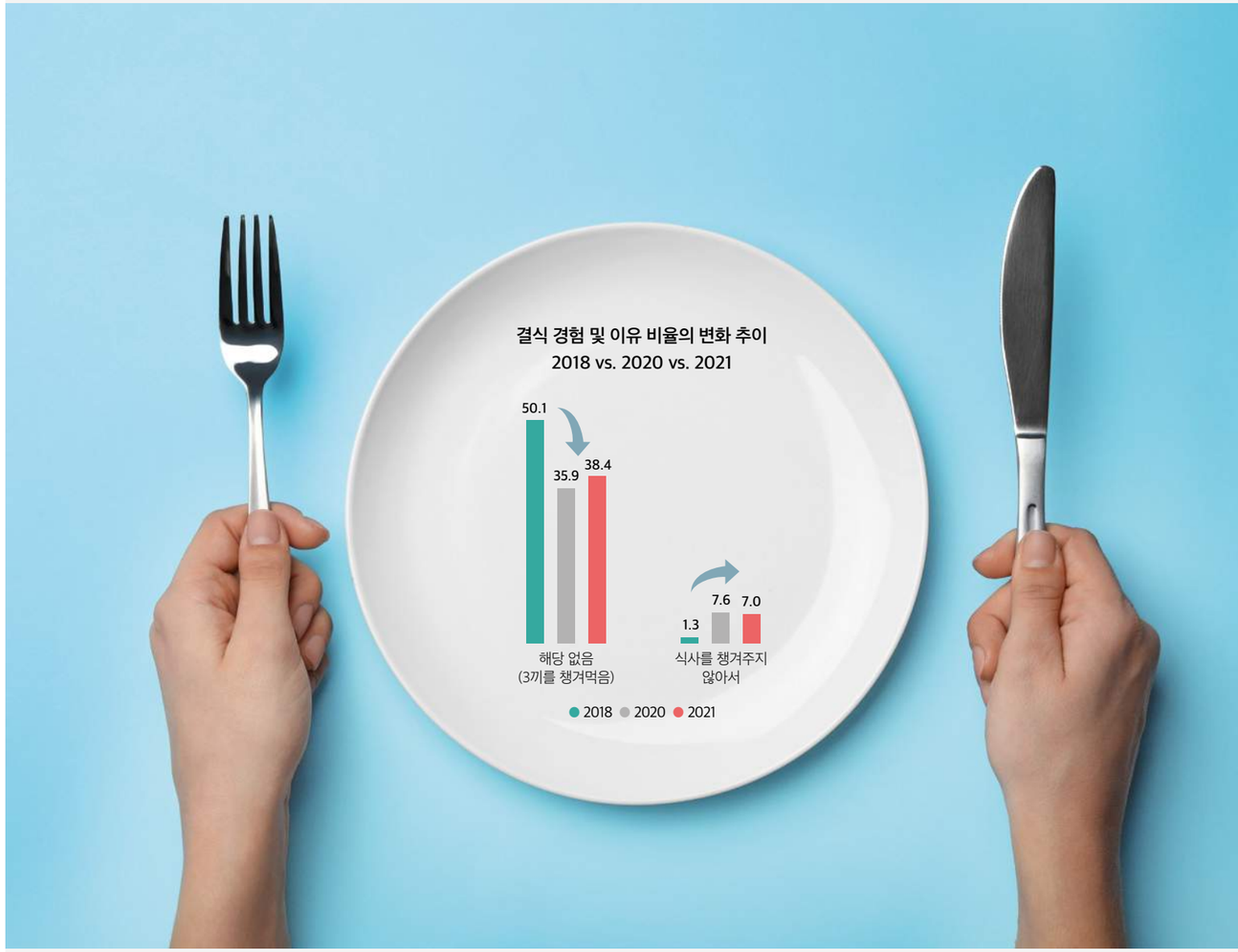
김의찬 2학년

책 쓰기는 제 인생에서 첫 경험이며 새로운 도전이예요. 개미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 경험을 살려서 개미 시점에서 공주개미가 여왕개미로 성장하는 여정을 글로 쓰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개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글을 쓰고 있는데, 완성해서 책으로 꼭 내고 싶어요.

코로나19 시대, 아동·청소년 결식 실태

우리 아이들, 밥은 잘 먹고 있나요?

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재난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취약 대상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의식주는 아동·청소년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청소년의 결식 경험이 증가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청소년의 결식 실태와 그 원인에 관해 국제비영리기구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Ⅰ·Ⅱ[1]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결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된 실태조사 Ⅰ·Ⅱ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학습 기간에 '하루 3끼 모두를 챙겨 먹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64.1%와 61.6%로 나타났다[그림1]. 2021년 결식 비율은 직전년도 대비 2.5%p 감소했지만 여전히 60%를 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18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표[2]한 결식 비율(49.9%)에 비해서도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일평균 식사 횟수는 대면학습 시기에 비해 원격학습 시기에 더 적었다(2.6회 vs. 2.8회)[그림2]. 하루 3끼 중 점심이나 저녁을 거른 비율은 5% 미만이었던 데 반해 아침을 거른 비율은 원격학습 시기엔 56.6%였고 등교학습 시기엔 36.5%로 나타났다. 하루 중 아침 결식 비율이 높고 이 비율은 원격학습 시기에 더욱 높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왜 결식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1 해당 자료는 2020년 6월(실태조사 Ⅰ)과 2021년 5월(실태조사 Ⅱ)에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만4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3,375쌍(2020년)과 3,994쌍(2021년)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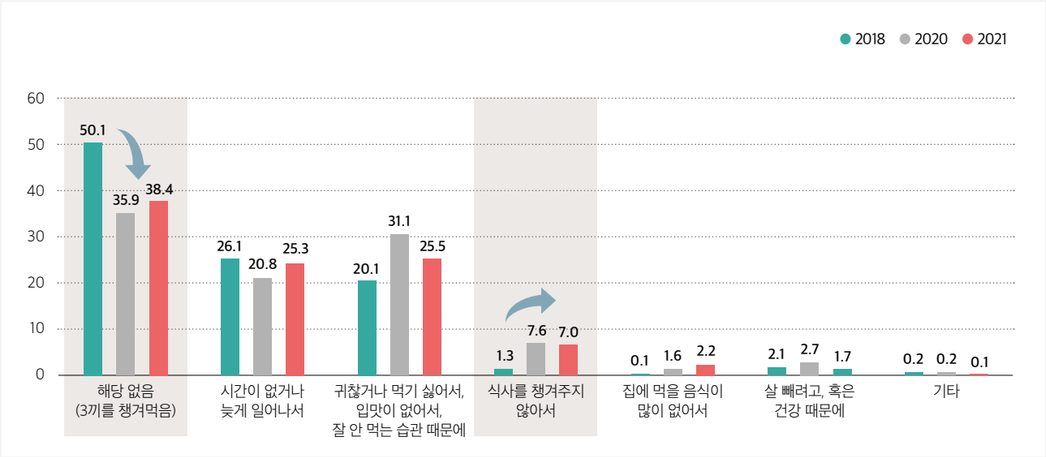
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이봉주·장희선·신원영, 2018)」이다.

돌봄 공백으로 배고픈 아이들

실태조사 Ⅰ·Ⅱ 결과에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결식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7.6%와 7.0%로 확인됐다. 이 비율은 원격학습 시기의 경험 기준으로, 2021년 대면학습 시기의 4.6%에 비해서도 2.4%p 이상 높고, 2018년 조사 결과인 1.3%에 비해서는 약 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청소년의 결식 경험이 돌봄 공백 및 보호자의 역할 가중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의 매 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을 꼽은 보호자의 비율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9.0%와 17.8%로, 다른 9가지의 항목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

특히, 원격학습 시기의 결식은 가정의 돌봄 수준과 관련이 깊다. 실태조사 Ⅰ·Ⅱ에 모두 참여한 아동·청소년 1,434명 중 원격학습 시기에 성인 보호자의 돌봄 수준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감소한 아동·청소년의 일평균 식사 횟수는 2.6회로, 이는 돌봄 수준이 2021년에 감소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2.7회보다 더 적은 횟수였다. 원격학습 시기 돌봄의 부재는 아동·청소년의 결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보호자 없이 자녀 홀로(혹은 자녀끼리) 있었던 날'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했다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5% 내외로 확인되고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 공백 심화와 결식아동·청소년 증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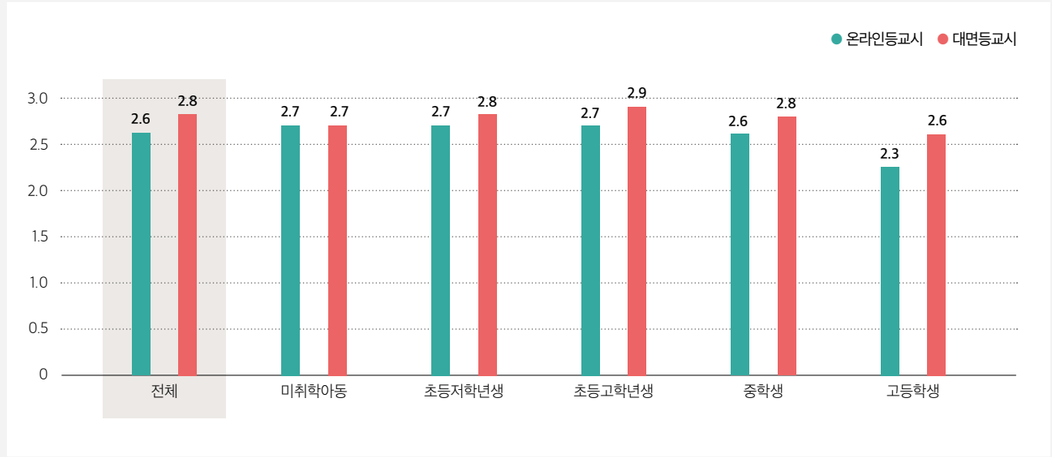
[그림1] 결식 경험 및 이유 비율의 변화 추이 (2018 vs. 2020 vs. 2021)



주1.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원격학습 시기의 결식 경험 및 이유에 대한 각 비율임.

출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2018; 2020; 2021)

[그림2] 아동·청소년의 일평균 식사 횟수(2021)



출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2021)

경제 위기로 심화된 결식

아동·청소년의 결식 원인을 경제 위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결식을 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연구 결과에선 0.1%였지만, 이번 2020년과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선 각각 1.6%와 2.2%로 2018년 대비 16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형편 때문에' 하루 1끼 이상의 결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4.2%에 달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결식아동·청소년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2007년에 27만 2천여 명이었던 급식아동지원사업[3] 대상자는 금융위기 발발 당시인 2008년에 41만 5천여 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53% 증가했다. 이 규모는 2년 뒤인 2010년에 48만 5천여 명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 대체로 감소했다(e-나라지표, 20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의 결식아동 규모 및 그 추이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결식아동·청소년 규모는 작지 않을뿐더러, 그 추이는 경제 위기가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급식지원 아동의 규모는 30여만 명으로, 2019년 한 해 지원규모인 33만여 명의 90%에 이미 육박했다. 실태조사 Ⅰ·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감소 가정의 비율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체 응답자의 약 35% 정도이고, 소득감소는 가구소득 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정에서 각각 82.5%와 78.8%로 매우 높게 확인돼,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 가정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 위기 및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역 수준의 좀 더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땅에 굶는 아이 없는 세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원격학습 병행 실시와 함께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가정 내 보호자에게는 더욱 많은 돌봄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계층에까지, 아동의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가정을 관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인 보호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 아동 홀로 혹은 아동끼리 라면 등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거르는 모습이 비단 소수만의 일이 아님을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굶주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은 소극적 차원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돌봄 필요 가정이라면 사회·계층에 따른 조건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안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필요 가정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개별 가정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필요 가정의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적 지원체계 내로 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돌봄 공백의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과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일부 지원 정책들은 돌봄 지원체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결식 경험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지원체계·정책 점검 필요

결식아동·청소년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급식 단가는 5천 원이지만, 2020년 기준 지역별 지원 단가는 최저 4천 원부터 최고 9천 원까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급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급식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방법, 소요 재원에서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역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 능력으로, 2020년 기준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10배 이상[4]이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다 보니, 아동에 대한 투자 재원과 지원 수준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원 내용의 질적 제고도 필요하다. 아동급식카드의 이용 가능 가맹점 중 편의점과 제과점 비율이 절반 이상(66.4%)을 차지하며, 일반·휴게음식점의 가맹 비율은 고작 28.7%에 불과하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음식 업종으로의 이용 확대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연계가 요구된다.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끼니의 '양'과 '질'적 수준의 최저 기준선은 상향 조정되어야만 하고 현행 격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결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 결식문제는 단순히 '밥을 굶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결식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돌봄 공백이다. 식품과 음식이 있으나 이를 때마다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아동·청소년 결식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식아동·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돌봄 공백을 줄여 아동방임과 방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돌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3 급식아동지원사업은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또는 식사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 아동이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는 방학·토·공휴일의 중식 지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고,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어 지원아동 수가 대폭 증가했다(e-나라지표, 2021.6.10 추출).

4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77.88%(최고)와 6.11%(최저)이다(지방재정365, 2021).



교복으로 재탄생한 한복

“예쁘데 편하기까지”

흔히 ‘교복’ 하면 떠오르는 옷차림은 재킷과 와이셔츠에 치마 혹은 바지로 이뤄진 양복 형태다. 어딘가 꽉 끼고 불편해 보인다는 인식도 함께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전통 옷인 한복을 현대화해 교복으로 도입한 학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복진흥센터는 지난해 한복교복 보급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16개 학교 약 2,300명의 학생에게 한복교복을 지원했다. 한복교복을 도입한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_ 양지선 기자

“어렸을 때 명절날 말고는 한복을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교복으로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특별하잖아요.”

충북 보은고등학교(교장 김진환) 2학년 조태웅 학생은 올해 처음 입게 된 한복 교복을 무척 맘에 들어 했다. 지난해 보은고가 한복교복 보급사업 시범학교로 선정되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과 소재로 한복교복이 만들어졌고, 올해 3월 전 학년에 보급됐다. “이전 교복은 조끼와 넥타이 등 챙겨입을 것이 많았는데, 한복교복은 윗도리와 바지로만 구성돼서 간편하고 활동하기에도 편하다.”라는 것이 조 군의 설명이다.

평소 생활 한복을 즐겨 입는 강태호 보은고 교무부장교사는 “아이들이 불편한 교복 대신 편한 한복을 일상생활에서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복교복 보급사업을 신청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 이뤄진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맞춤형 디자인을 선정했다. 학생들은 수시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교복 시제품을 입어보며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 한복 디자이너는 보은고 전교생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 크게 세 가지 사이즈로 교복을 제작하고, 기성복이 맞지 않는 학생을 위해 별도로 주문제작도 진행했다. 강태호 교사는 “한복교복을 도입한 후 아이들이 생활복보다 교복이 더 편하고 예쁘다며 잘 입고 다닌다.”라고 말했다.

보은고 한복교복의 특징은 얼핏 보면 일반 교복과 비슷하면서도 한복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윗도리 목 부분이 저고리처럼 깃 형태로 되어있고, 여기에 오방색 동정을 더해 포인트를 줬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이질적인 느낌이 없다.

남학생 바지는 통을 넓히고, 여학생 하복 치마는 덧치마 형태로 만들어 활동성을 높였다. 1학년 이진희 학생은 “덧치마 덕분에 앉았을 때도 편하고, 얇고 시원한

1 보은고 한복교복(하복)의 특징은 얼핏 보면 일반 교복과 비슷하면서도 한복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남학생 바지는 통을 넓히고, 여학생 하복 치마는 덧치마 형태로 만들어 활동성을 높였다.

2 보은고는 학생과 학부모로 이뤄진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맞춤형 디자인을 선정했다. 학생들은 수시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교복 시제품을 입어보며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

3 강진작천중의 한복교복(동복)은 한복의 곧은 깃에서 영감을 받은 덧저고리와 여학생 치마의 색동무늬가 돋보인다.





66

한복교복은 예쁜 데다 몸에 끼지 않아 좋아요. 공부, 운동, 휴식, 놀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99

소재여서 몸에 달라붙지 않아 좋다."라고 말했다. 치마에 달 수 있는 자락장식은 노리개를 재해석한 것으로, 보은고의 교목 소나무와 교화 모란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 더욱 특별하다.

학교는 한복교복과 연계해 전통예절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김진환 교장은 "한복교복을 입으면서 학생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학생 주도로 디자인과 소재 선정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기민철)는 학생들의 제안으로 한복교복을 도입하게 됐다. 이 학교 2학년 나은교 학생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복교복 시범사업 관련 기사를 보고,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복교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기사에서 본 한복교복의 색감이 예쁘고 디자인이 독특해서 입고 싶었어요. 거기다 교복비도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은교 학생이 올린 글에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졌고,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복교복 시범사업을 신청하게 됐다.

교복 선정 과정에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1, 2학년 전체 학급 임원 15명이 모여 한복진흥센터에서 제작한 디자인북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10벌의 디자인을 1차 선정했다. 이후 학생들이 시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남녀 동복과 하복을 각 두 벌씩 2차로 예비 선정했다. 최종 디자인은 조회시간을 활용해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결정됐다.

학생들은 한복교복이 이전 교복에 비해 넉넉하고 활동하기 편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1학년 김영헌 학생은 "중학교 때 교복은 몸에 딱 붙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교복은 품이 넉넉해서 편하다. 특히 하복이 반바지인데 신축성이 좋아서 체육복 대신 입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나은교 학생은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들어가서 급식을 먹은 후에도 배가 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복교복 시범사업은 3년간 한 학년 150명, 1인 30만 원 한도로 4개 학년을 지원한다. 광일고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학생 168명이 총 5,040만 원어치의 한복교복을 지원받았다. 심은정 교사는 "무상으로 한복교복을 지원받은 덕분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소속감도 커졌다."라고 말했다.

4 보은고의 한복교복(춘추복). 한복교복 보급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교복비 미지원 학교에는 3년간 한복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사진=돌실나이 제공)

5 광일고는 학생들의 제안으로 한복교복을 도입하게 됐다. 동복 재킷 동정과 여학생 치마에 오방색 교차무늬를 넣어 체크무늬와 같은 효과를 주었다.





활동성 높고 세탁 쉬워 실용적

전교생 14명의 작은 학교인 전남 강진작천중학교(교장 김우수)도 지난해 11월부터 한복교복을 입고 있다. 평상시에도 한복을 즐겨 입는다는 강정희 교사는 학생들이 아름답고 편한 한복의 매력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복교복 보급사업을 신청했다.

강 교사의 바람대로 학생들은 한복교복에 애정을 드러냈다. "한복을 교복으로 입는다니 새로웠어요. 디자인도 예쁜데, 몸에 끼지 않고 넉넉해서 좋아요. 교복을 입고 공부, 운동, 휴식, 놀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3학년 강윤희·권보아·김은숙 학생이 입 모아 얘기했다.

"한복교복 도입 후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어요.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 밖에 나갔을 때 교복을 보고 특별한 학교 같다며 여쭤보곤 해서 학생들의 어깨가 으쓱해졌죠." 강 교사의 설명이다.

강진작천중 학생들도 교복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학생 하복은 폭이 넓은 치마바지로 선택하고, 남학생 하복은 한복의 사폭바지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활동성이 돋보인다.

한복교복 디자인을 담당한 김남희 돌실나이 대표는 "학생들이 매일 하루 10시간 이상 입는 옷이기에 편안함을 제일 중요시했다. 신축성이 있으면서 구김이 가지 않고 세탁이 쉬운 소재를 사용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천연소재를 더했다."라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한복을 만들어온 김 대표는 "한복이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옷이 되어가고 있다. 젊은 세대가 한복을 교복으로 입음으로써 전통 옷의 명맥을 이어가고,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한복이 비싸고 접하기 어렵다는 대중의 인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우리가 흔히 입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한복은 그렇지 않아요. 한복 디자이너 한 명을 양성하는 데 길게는 10년이 걸릴 정도로 인력 확보가 힘들고, 장인들이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죠. 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사랑해주신다면 한복산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한복교복 보급사업에는 총 20개교 내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에 한복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교복비 미지원 학교에는 디자인 상담뿐만 아니라 3년간 한복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엄마선생님! 오늘도 바깥놀이해요”

열심히 준비했던 수업이 막 끝날 무렵, “선생님, 바깥놀이는 언제 가요?”라는 물음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었다는 경남 진영장등초병설유치원 윤미정 교사. ‘내 수업방식에 과연 문제는 없었는지’ 인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놀이수업 교육과정’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도 함께 행복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_ 김혜진 객원기자



윤미정

경남 진영장등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교사

> 천둥이 치면 저와 함께 ‘귀신놀이’도 하고, 또 비 오는 날 교실 밖에서는 온몸으로 뒹굴면서 ‘진흙놀이’도 해요.

모래 위의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연신 모래를 퍼내며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바로 옆,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도 웅덩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두 웅덩이를 연결하여 수로를 낼 차례. 자그마한 삽을 든 친구가 열심히 길을 내고 있었다. 지난 6월 9일, 경남 진영장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바깥놀이 수업현장. 친구들과 힘을 모아 물웅덩이를 만들고, 물길도 새로 내는 등 신나는 놀이수업이 한창이다. 이 상기된 아이들 속에서 함께 신이 난 ‘엄마선생님’, 바로 윤미정(48세) 교사다. 이곳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때로 윤 교사를 ‘엄마선생님’이라고 부르곤 한단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중에는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뿐이죠.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도 해요. 이런 시행착오와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게 되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바깥놀이 수업이 끝나고 기자와 마주 앉은 윤 교사는 이 놀이수업에서 거두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이렇게 들려줬다.

“선생님, 바깥놀이는 언제 가요?”

즐거움으로 아이들이 폴짝폴짝 뛰어놀 수 있게 하는 수업,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수업. 윤 교사가 꿈꾸는 유아교육, 놀이중심 수업의 목표였다. 윤미정 교사가 놀이중심 수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그 무렵, 윤 교사는 근무지를 도시에서 아예 농어촌학교로 옮겼다. 도심지 학교보다는, 농어촌학교 1학급 교실에서 그의 놀이중심 수업에 대한 꿈은 더 구체화 될 수 있었다.

“어느 날인가, 수업을 마쳤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바깥놀이는 언제 가요?’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열심히 준비한 수업이었는데, 맥이 탁 풀렸었죠. 내 수업방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웠죠.”

‘기적을 만드는 모험놀이, 현실이 되는 상상놀이, 함께 자라는 경쟁놀이.’ 이는 윤 교사가 그동안 구안한 놀이중심 프로그램들이다. 유아교육을 해 오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활동들을 마음껏 시도해 보며 해답을 찾게 해준 결과물들이다. 윤 교사는 또 장애나 불안,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이 같은 놀이수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 오고 천둥 치는 날에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놀이수업을 한 아이들은 비가 오면 ‘와, 오늘 천둥도 쳐야 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재밌어해요. 천둥이 치면 저와 함께 ‘귀신놀이’도 하고, 또 비 오는 날 교실 밖에서는 온몸으로 뒹굴면서 ‘진흙놀이’도 하고요.”

이처럼 기존의 규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놀이, 옷이 더럽혀지거나 위험하다는 핑계로 주저하던 놀이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수업시간은 비로소 ‘재미와 흥미’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2


3

1 천놀이. 천 한 장으로도 아이들은 옷도 만들고 패션쇼도 꾸미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2 기존의 규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동안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아이들. 윤미정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3 웅덩이놀이. 옷이 더럽혀지거나 위험하다는 핑계로 주저하던 놀이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수업시간은 비로소 '재미와 흥미'로 가득 채워진다.

다문화가정 지킴이 일등공신 선생님

윤 교사의 놀이중심 수업은 매달 하나의 주제로 운영된다. 6월 중 주제는 '천놀이'. 천 한 장으로도 아이들은 옷도 만들고, 패션쇼도 꾸미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곤 한다. 이곳 진영장등초로 부임하기 이전의 학교들에서는 유독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았다. 남해지역 학교에서는 학급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다. 당시 아이들에게 어머니 나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무관심을 개선하게 해준 프로그램도 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곤 했다.

"다문화 강사를 매년 초빙하여 요리도 하고, 베트남 옷 입고 패션쇼 하기 등 어머니 나라에 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들이 특히 고마워하셨었죠."

그런데 당시 무엇보다 윤 교사를 안타깝게 했던 건 이러한 노력에도 여러 다문화가정의 해체와 붕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감당해야 했던 주원이(가명)네도 마찬가지였다. 윤 교사는 "하지만 학부모님도, 아이들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1

"안명초유치원에 근무할 때 만난 윤성이(가명)는 부산·경남지역을 통틀어 또래 중 운동신경이 최고라는 평가였어요. 다문화가정인 데다 부모님 모두 청각장애인이셔서 제대로 교육을 지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죠. 제가 나서서 학교 차원의 지원 방법을 의논하며, 학부모님들께 사정을 알렸더니 모두 가족의 일처럼 도와주셨었죠."

운동 종목 중에서도 축구에 유독 소질이 있던 윤성이는 축구교실의 등하원부터 축구용품 지원까지 여러 경로로 지원을 받으며 경남지역의 축구 꿈나무로 자랄 수 있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윤 교사는 지난 5월,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아교육 부문 교사로서는 역대 수상자 중 세 번째 영예였다. 10년 동안 계속해온 놀이중심 교육과정 연구와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책놀이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해에는 김해유아놀이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유년 시절이던 일곱 살 무렵, 동네 꼬마들을 모아놓고 집 담벼락에 '가, 나, 다, 라'를 써 가며 '선생님놀이'를 즐겼었다는 윤미정 교사. "유치원 교육의 목적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유아기는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틀을 만들 때 교사는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직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아이들에게 놀기를 주문하면 교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여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 놀이중심 수업방식은 실행하는 교사로서도 완급조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수업방식이 낯선 선생님들을 위해 2년 전 수업나눔축제에서처럼, 제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놀이수업 연구에 게으르지 않을 계획이고요."

윤 교사 스스로 놀이수업을 수행하면서 교사로서도 자신감을 되찾고,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해진 것처럼, 앞으로 후배 교사들과도 그 행복을 함께 나누어갈 생각이다.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 이야기

글 _ 옥효진 부산 송수초등학교 교사



오늘은 월급날이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이번 달 월급명세서에서 내 월급을 확인한다. 소득세 15%, 임대료, 건강보험료를 떼고 난 뒤 실수령액을 받는다. 받은 월급으로 예금 상품에 가입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들러본다. 사 먹고 싶은 게 있지만 꾹 참고 6주에 5%의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은행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내가 투자한 상품의 주가도 확인해 본다. 다행히 투자한 상품의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같아 보인다. 하지만 사실 위에서 본 월급날의 모습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5학년 2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23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실은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진짜 돈이 아니라 우리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미소'라는 단위의 학급 화폐 이야기다. 올해로 3년째 학급 화폐를 활용한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했고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선생님이 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금융 문맹자였다. 보험, 대출, 금리, 세금,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 금융범죄 예방법 등 꼭 필요하지만 알지 못하는 경제·금융 지식이 너무나 많았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왜 이렇게 돈에 대해 모르고 있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답은 간단했다.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진 생각은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지?'였다. 그리고 '나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체육전담을 하는 1년 동안 내년에 담임을 다시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직접 경험하며 경제·금융교육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둘 활동을 구상해가기 시작했다.

> “‘왜 이렇게 돈에 대해 모르고 있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답은 간단했다.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실은 하나의 나라다

나라 이름과 국기도 있고, 우리 교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학급 화폐인 '미소'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실에서 직업을 갖는다. 직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하고 있던 교실의 1인 1역할을 조금 변형했다. 우유 급식을 챙기는 친구는 낙농협회, 우리 반 냉난방기 담당 친구는 한국전력과 같은 식이다.

직업을 갖고 일을 했으니 당연히 급여도 받는다. 직업마다 정해진 월급을 '미소'로 받는다. 하지만 월급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간다. 우리 반의 소득세율은 보통 15~20%이다. 첫 월급날 아이들은 세금이 떼어진 실수령액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이것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 많이 뺏어가요?" 교실은 불만 섞인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다. 세금을 걷기만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세금을 쓰는 설정도 마련해두었다. 우리 반(나라)에서 거두어진 세금은 우리 반(나라)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 시계의 건전지가 다되어 건전지를 사올 때, 교실의 보드 마커가 다되어 새로 사 왔을 때, 세금 지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한다. 우리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공무원 친구들에게 주는 월급도 세금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아이들은 세금을 왜 걷고 어디에 쓰는지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받은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 소비, 저축, 투자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과자를 사 먹거나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니면 급식 먼저 먹기, 자습 시간 자유이용권 등의 쿠폰에 돈을 쓸 수도 있다. 가격이 높은 선생님과 나들이 쿠폰, 자리 구매권 등을 사기 위해서는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의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만기의 기쁨을 맛보는 아이들, 중도해지의 아픔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다.

저축 이자율보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주식 투자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동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기해 버릴 것이다.







1 아이들은 저축 대신 '선생님 몸무게'에 투자할 수도 있다. 몸무게가 0.1kg 오르면 수익률이 1% 오르는 식이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생님 다이어트 시작'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투자와 저축의 차이를 배우게 된다.

2 우리 반에서 거두어진 세금은 우리 반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 국세청장을 맡은 학생은 세금 지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 몸무게'에 투자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게 선생님 몸무게가 0.1kg 오르면 수익률 1%로 설정했다. 몸무게가 1kg 찌면 아이들은 10% 수익을, 1kg 빠지면 10% 손해를 보는 식이다. 아이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생님 다이어트 시작', '선생님 주말 동안 맛집 투어 예정' 등과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투자와 저축의 차이를 배우게 된다.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 손해를 볼 위험성, 정보 분석을 통한 투자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사업활동, 경매활동, 기부활동 등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법과 연계한 활동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교실이 하나의 나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나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교실에서 일어난다.

학급 화폐로 아이들은 자연스레 경제·금융을 배우게 된다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경제·금융교육이 일회성이거나 이론적이었던 데 반해, 학급 화폐로 하는 활동은 1년 동안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활동이다. 놀이처럼 참여할 수 있기에 아이들은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즐겁게 참여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나 활동들도 여러 번 반복하면 일상적인 것들이 된다. 경제·금융 생활을 직접하며 지내니 관련 도서에 관심을 갖는 친구도 많아진다. 집에서 부모님과 뉴스를 보며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레 이야기하는 친구도 생긴다. 일기에서도 경제·금융 관련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경제·금융교육을 목표로 학급 화폐 활동을 구상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다. 바로 교실이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활동을 좋아한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교사도 덩달아 즐거워진다. 기존의 교과수업, 업무, 학생지도와 더불어 해야 하는 활동이기에 사실 교사의 시간 투자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물가 관리의 실패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가르치는 활동이 아니기에 도덕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에게 힘든 활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3년째 이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힘듦보다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이 활동을 주변 선생님들께도 추천드리고 있다.

그동안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제·금융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소홀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다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꼭 학급 화폐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이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회에 내던져지는 나와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SPECIAL

특별기획

디지털 세대에게 '책'으로 말 걸기

최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원격수업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과의존 현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손안의 스마트폰 세상에 흠뻑 빠져 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손안의 세상에 갇힌 우리 아이들을 책의 세상, 독서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6 손안의 세상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들
32 온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_ 책 읽기에서 책 쓰기까지
28 디지털 시대,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36 "친구야 책방 가자"

손안의 세상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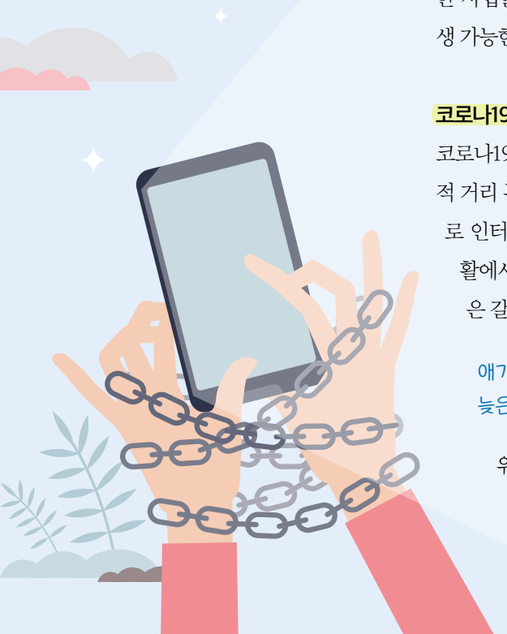
글 _ 박종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서비스팀장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사람과 대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틈을 스마트폰이 채우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학교현장의 고심이 깊다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비단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의 사용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아동은 27.3%, 청소년은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되어 전 연령대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상승폭도 높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행동과 심리 간 관계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과의존예방상담센터로 개소된 이래 올해로 20년째를 맞이 하는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능정보기술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역기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환경에서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초·중·고교생들은 비대면 원격수업이 익숙해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로 인해 학업이나 여가 등을 이유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량은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야기하고 있다.

> 애가 공부한다고 태블릿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하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 맨날 싸우게 되네요.

위와 같은 사례는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비일비재한 상황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사람과 대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틈을 스마트폰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 조절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악순환이 심화 되고 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체계적·유기적 연계 강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응하고, 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3년을 주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과의존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바른 스마트폰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체계적·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가정에는 디지털 세대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거나 관련 콘텐츠 동영상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고, 관련 교육을 대상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원활한 지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상담 유관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지털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한 필요조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세상이 배움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쉼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센터 또는 가정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책은 상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아직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책이 상담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와 함께 책을 선정하고 읽어나가면 그 이야기 속에서 교육, 성찰, 치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은 긍정적·주체적으로 동기화되고, 이는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책을 읽으며 상담시간에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환경으로 인해 손안의 스마트폰 세상에 갇힌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백신을 준비하고 이를 접종해 나간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디지털 시대,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글 _ 백화현 <책으로 크는 아이들> 저자





> 책의 재미를 경험시켜 주기에 '읽어주기'만 한 것은 없다.

종이책은 '천천히' 편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나태주의 '풀꽃' 전문이다. 세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이 시가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시인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 간절한 열망을 알아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길' 원한다. 자신이 장미꽃이든 풀꽃이든 말이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요구, 당연한 욕망이다. 그러나 이 욕망이 채워지기란 참말이지 어렵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초고속'을 앞세우는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엔 더더욱 그렇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말마따나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할 터인데 시대는 우리를 자꾸만 빨리, 더 빨리 뛰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3초 광고에 익숙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두 살 때부터 스마트폰과 TV를 접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빨리' 넘어가는 화면에 익숙해져 '느린 것'은 곧 '답답한 것'이 되고 만다. 더욱, 자라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인터넷의 광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오래도록', '자세히'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룰 길을 찾지 못해 불안과 초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디지털 시대에도 가끔씩이나마 천천히 걸으며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자연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다.

유튜브와 영상자료들, 그리고 인터넷 정보들이 '빨리' 편이라면 종이책은 '천천히' 편이다. 이들 모두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풍요롭게 하고, 잘만 활용하면 앞만 보고 달리려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자신과 이웃, 세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지만, '천천히' 걷게 하는 데는 종이책만 한 것이 없다. 종이책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면서도 친자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종이책을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다.

9세까지는 종이책을 읽어주며 '책의 재미'를 알게 하자

책을 읽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자를 읽는 일은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태곳적에도 소리를 듣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글을 읽는 일은 문자가 탄생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마저도 오랜 세월 양반과 귀족에게만 허락되었기에 일반 서민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우리의 경우엔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이 있고 난 후였다. 이처럼 독서는 아주 늦게 시작된, 애초 없었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내는 후천적인 것이기에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지속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독서계의 거장 다니엘 페나크가 지적한 것처럼 독서에는 명령형이 먹히지 않는다.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욕심을 앞세워 강요하기보다는, 천천히,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법을 찾되, 시작은 언제나 '재미'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의 재미를 경험시켜 주기에 '읽어주기'만 한 것은

없다. 몇 년 전 해외 여러 나라 학교와 도서관을 탐방한 적이 있다. 이때 캐나다 토론토 조이스초등학교와 미국의 드와잇초등학교에서는 유치부와 1, 2학년 아이들에게 '독서수업'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읽어주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또 일부 가정에서도 '읽어주기'는 더러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들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다, 오로지 '재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니라서 방법이 많이 달랐다.

"우리는 평생독서가를 기르기 위해 이 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평생 책을 읽는 사람으로 기르려면 어린 시절에 '책의 재미'를 충분히 누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치부와 1, 2학년에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책을 골라 읽어준 후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 상상과 경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드와잇초등학교 사서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독서수업 시간에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가져오지 않았다. 40분 동안 선생님이 한두 권의 책을 읽어주면 질문하고 상상하고 경험담을 나누고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등, 신나게 이야기를 할 뿐 전혀 쓸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글자만 바글바글한 책'이 눈물과 웃음을 주고, 손에 땀을 쥐게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상상과 경험의 세계를 마음껏 펼치며 한껏 '책을 즐길 수' 있나 보다.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조셉 르두는 '학습이란 천성을 길들이는 것'이라 했다. 2~3년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책=재미'라는 의식이 절로 싹트고 자신도 모르는 새 책만 보면 손이 절로 가게 되는 '길들임'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학습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어린이를 독서로 이끌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지 싶다.

도서관을 고향처럼 그리운 곳으로

독서에 있어서만큼은 북유럽이 세계 최고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는 어린이책 천국이다. 토베 얀손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안데르센의 영향력이 막강한 탓인지, 애초에 독서 토대가 탄탄했기에 이러한 아동문학가들이 탄생한 것인지, 순서야 어찌되었든 그들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책에 둘러싸여 자란다. 2014년 북유럽 도서관들을 탐방하러 갔을 때 주요 도서관들은 가장 비싼 땅, 도심 한복판이나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서관마다 유모차가 즐비하게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면 퇴근을 한다. 그리고 탁아시설이 잘 되어 있는 탓인지 여성과 남성이 엇비슷한 취업률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 아빠 손을 잡고 오거나 아빠 품에 안겨 책을 보는 아이가 많다. 그들은 퇴근길에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탁아소에서 찾아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두 권 읽어주고 아이가 도서관에서 놀도록 한 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주말에는 그런 풍경이 더욱 흔하다.

도서관에는 책만 있지 않다. 그곳에는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고 냄새가 있고 풍경이 있다. 이런 곳을 아기였을 때부터 자주 접하다 보면 그곳은 집처럼 편안하고 고향처럼 그리운 곳이 될 것이다. 이를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어서도 스스로 도서관을 찾게 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다. 그리운 곳=도서관.

아이를 책으로 이끌고 싶은 교사와 부모라면 탐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방법이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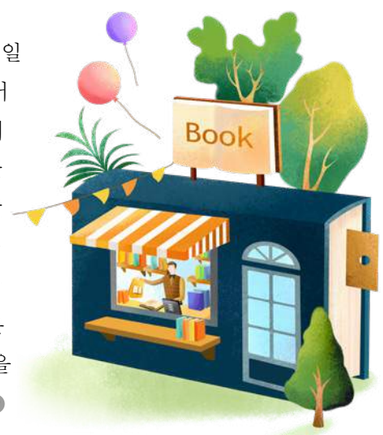
친구와 책모임을 하도록 돕자

서구 선진국에서는 저학년까지는 '책의 재미'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을 책으로 이끌지만, 3학년부터는 탐구활동을 하도록 이끈다. 교과서를 통해 기본 내용을 익힌 후, 도서관 또는 교과실의 수많은 책과 컴퓨터의 웹자료들을 찾아 아이들 스스로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발표한 후 글을 써 제출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과 결과물들이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 당연히 따로 정답 하나를 맞히라는 시험은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 하나에 정답 하나'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데다 교육열이 하늘을 찌를 만큼 드높은 경우, 우리처럼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끝없이 문제집을 푸는 일에 내몰릴 확률이 높다. 점수를 올리는 데 반복과 예습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아이들은 독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설혹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칠 대로 지친 탓에, 그 시기에 적합한 문학서나 인문서보다는 쉽게 읽히는 만화책이나 판타지 소설을 택할 수밖에 없다. 독서 정체 내지는 퇴보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테니, 우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고학년 이상 중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책과 친구를 결합시킨 책모임을 하도록 이끌면 좋겠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친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데다 사이에 '책'이 매개가 되면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정신적인 벗'을 얻게도 된다. 곧 친구도 얻고 책도 얻게 되어 '행복한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두 시간씩, 정한 요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나 '같은 책' 또는 '주제는 같되 다른 책'을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누면 된다. 물론 분량이 많은 단행본의 경우는 미리 책을 읽어 와야 한다. 또 읽고 토론하는 것 외에 쓰기도 병행하고 싶다면, 미리 독후감을 써 오거나 질문을 만들어 오거나, 맘에 드는 단락을 베껴오는 일을 그때그때 첨가하면 된다. 우리 두 아들의 경우,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우리 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책모임을 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대 이상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감동을 했기에, 이 모임 형태를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 그대로 도입하여 한 해 20개가 넘는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해 보았다. 지면상 길게 소개할 수가 없으니, 궁금한 분들은 졸저 <책으로 크는 아이들>과 <도란도란 책모임>을 참고하면 좋겠다.



앞서 말했지만 독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본능이고 인간은 누구든 자신의 성장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 가면 많은 아이들이 책이 주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두의 따뜻한 연결, 온[1]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

책 읽기에서 책 쓰기까지

글 _ 김정희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 모두를 디지털 시대 한가운데로 급속하게 데려다 놓았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학교를 생각하며, 그 시선을 교실로 보내고자 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책 읽기, 토론, 책 쓰기 교육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자 노력해 온 대구독서인문교육의 생생한 현장은 교실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국어 수업을 하고 그 결과를 <질문하는 책 읽기>라는 책으로 낸 학남고 김미향 선생님의 이야기와 대구신성초 3학년 담임 김재선 선생님의 '그림책 읽기로 생각을 꽃피우는' 수업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로나 시대의 독서, <질문하는 책 읽기>

2020년 봄. 맨 앞에서 코로나를 혹독하게 맞은 대구는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지 않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학교는 갈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맡은 학년은 고3이었으니까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채팅을 하고 과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일상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줄 글 속에서 저는 답답하고 우울해 하는 아이들,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제 한 줄 댓글에 금세 힘을 얻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6월이 가까워 학교를 찾은 고3들, 수능 특강 진도가 빠듯한 고3 수업을 벌려 틈을 만들었습니다. 주 1시간 '독서와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대개의 고3 수업은 교육과정, 교과서를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읽고 쓰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읽고 쓰기는 문서화된 근거가 없어도 그 자체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는 고3에서 할 정당성을 조금 더 찾고 싶었어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힘을 얻어 이를 수업과 평가로 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진로 적성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을 하나씩 고르게 했습니다. 여섯 시간은, '질문하는 책 읽기'를 했습니다. 매 수업 30분 읽고, 15분 독서일지 쓰기를 다섯 번, 쓰기 없이 자유롭게 50분 읽기를 한 번 했습니다. 독서일지를 쓸 때는 질문 두 개를 꼭 만들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1 '온' 의 의미: '모두의' 온, 따뜻할 溫, 연결의 ON→융합과 협력, 따뜻한 인문, 온라인 연결을 의미함

탐구와 성찰을 할 수 있는 열린 질문, 오래 두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 질문을 만들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꼭 질문의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읽고 쓰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질문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 시간 수업의 장면을 찍고 의미있는 생각들을 카톡 오픈채팅에 공유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와 지속에 유용했습니다. 사진과 채팅으로 또래의 활동을 보며 아이들은 끝까지 읽고 쓸 수 있는 지구력을 얻었을 겁니다. 뒤의 네 시간은 '질문하는 책 쓰기'를 했습니다. 두 시간은 질문을 다듬고 나누고, 두 시간은 긴 글을 썼습니다. 6월에서 8월, 1/3등교, 2/3등교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투명 칸막이 안에서 고3인 우리가 한 일입니다. 칸막이 안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신을 다독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무너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피드백과 공유를 통해 칸막이를 넘어서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그 글을 묶어 <코로나 시대의 독서, 질문하는 책 읽기>라는 이름의 책을 냈습니다. 고3에게 읽고 쓰기를 하게 한 것은 지난해 제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읽기와 쓰기를 통해 아이들은 숨을 쉬고, 감정을 토하고, 마음을 다듬고, 다시 생각을 꺼내어 닦았습니다. [학남고 김미향 선생님 수기요약]

금쪽이는 과연 문해력이 없는 아이일까요?

TV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를 시청 중이었습니다. 금쪽이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선택적 함구증을 앓고 있는 아이로 집에서는 말을 곧잘 하지만 학교에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숙제 시간, 금쪽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을 읽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천천히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모두 읽자 금쪽이는 태블릿으로 독서퀴즈를 풀었습니다. 오소리 아줌마가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거리로 적절한 것은? 오소리네 집 둘레에 핀 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금쪽이는 고민에 빠졌고, 그걸 보는 엄마는 답답합니다. 퀴즈를 모두 푼 금쪽이의 점수는 30점, 독서인증 실패입니다.

금쪽이는 정말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일까요? 당장 우리 반 아이들과 이 그림책으로 수업을 해보고 싶어 주말 내내 월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교시,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림책을 보는 동안 두 가지를 독서기록장에 써 주세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 질문 하나와 나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 단어 하나를 써 주세요."

그림책을 두 번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소리 아줌마를 날아가게 한 바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어느 곳으로 데려가 줄지 설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경은)

"저는 '오소리 아저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소리 아저씨처럼 저희 집에도 예쁜 꽃밭을 만들고 싶어서예요."(도영)

40리를 기억하거나 꽃이름을 떠올린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공책을 돌려 보면서 친구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친구의 질문에 깊은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적어준 답변을 보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기도 합니다.

"오소리 아줌마는 왜 자꾸만 오소리 아저씨에게 괭이로 쪼지 말라고 했을까?"

"꽃밭에는 오소리 아줌마도 몰랐던 꽃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괭이로 쪼면 꽃이 아프잖아. 금방 시들어버릴 거야."

우리 반에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금쪽이는 정말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였을까요? 문해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일까요?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능력일까요? 저는 문해력이 '감동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무엇이 감동적이었어?"라고 물어봐 주세요. [대구신성초 김재선 선생님 수기요약]

흙을 가꾸는 노력을 거듭하며

유능한 정원사는 꽃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흙을 가꾼다고 한다. 흙을 잘 가꾸어 놓으면 어떤 씨앗이 날아와도 잘 자란다고 하니 말이다. 대구교육청에서는 독서의 토양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다. 2005년 시작된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독서 10분 운동, 삶쓰기 100자 운동, 토론 교육, 책 쓰기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책 읽기-토론-책 쓰기' 융합적 독서인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지향하기에, 독서와 인문교육을 합한 독서인문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독서인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서인문교육 활동비(교당 100만 원)와 독서인문 학생동아리 운영비(초등 172만 원, 중등 215만 원)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추진해 온 독서인문교육 정책에 공감하며 학교 현장에서 책 읽기, 토론, 책 쓰기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은 힘들었지만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교사로서도 성장했다고 한다. 대구 독서인문교육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교사들은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현장 전문가가 되었다.

학생을 먼저 지도하며 시행착오 속에서 길을 찾은 전문가 선생님들은 독서인문교육 담당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업과 동아리 활동 속에서 터득한 삶을 위한 독서인문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연수, 동아리, 연구회, 멘토링, 컨설팅으로 희망하는 교사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교원 연수 이후, 연수생으로 참여한 교사들이 강의를 한 교사와 함께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예시: 진짜 자발적인 교사 동아리, 매일 막쓰기 동아리 외).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며 성찰한 힘이 교실의 수업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1


2

12 학남고 3학년생들의 책 읽기 수업

책 읽기에서 책 쓰기까지



학생들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토론, 책 쓰기 동아리,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책을 읽는 독자이면서 책을 쓰는 저자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에도 학생 및 교원 저자 책 쓰기 우수 작품 공모전을 통해 40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편당 300만 원의 출판 지원금과 출판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학교 책 쓰기 지도와 도서 출판 등의 경험이 있는 현장 교원을 출판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정식 출판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 동안 진행하여 정식 출판하였다. 출판된 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다. 학생저자의 작품에는 최근의 흐름이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참신한 느낌을 주는 책이 많다.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처음 학생저자 출판 지원 도서 1권이 나온 이후, 매년 학생저자의 책은 꾸준히 출판되어 올해까지 총 343편(교원저자 도서 포함)이 나왔다.

학생들이 책을 출판했다고 하면, 초등학생은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할 텐데 과연 책을 쓸 수 있냐고 하는 이도 있다. 대구의 학생저자 책은 학교 밖의 사교육을 통한 결과물이 아니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인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학생을 지도한 교원의 책 쓰기 결과물인 교원저자의 책 속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저자 도서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여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학생저자의 도서가 대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학교 소식도 들려온다. 교원저자의 책도 동료 교원들이 줄을 그어가며 읽는 인기도서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선순환하고 있다.

책 쓰기, 다시 책 읽기로

대구대봉초 최순나 선생님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또래의 책은 새로운 배움이 되어 '나도 이 정도면 쓸 수 있겠어.'라는 자신감과 친근감이 들게 한다. 더구나 작가와의 만남과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어 선배가 책쓰기동아리에서 쓴 책을 후배가 읽기도 한다. 학급 학생 수만큼 책을 구입하여 돌려 읽으면 3학년이 읽던 책을 6학년이 읽어보기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된다. 울산의 선생님 한 분은 대구대봉초 어린이가 쓴 <벚꽃 읽기>를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소감을 쓰고 시화를 그려서 학생저자에게 쓴 편지와 함께 보내 왔다는 얘기도 들려준다. 계성중학교 동아리 '가온계성'에서 출판한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 본 대구 관광 안내서' <대구데이>는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의 지역 탐방 단원에서, 대구동도초 4학년 어린이들이 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대건고 학생들이 쓴 <처음이에요 가족이지만>은 대구시청에서 주관한 '2021 대구의 책' 청소년 분야 도서로 선정이 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친구야 책방 가자!"

글 _ 안희곤 사월의책 대표



먼저 질문부터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가장 최근에 책방에 가본 적은 언제인지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자신만만하게 답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우물쭈물 5초쯤 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데 거금 5백 원을 걸겠습니다. 편의점 가듯 서점에 들르고 '카톡' 보듯 책을 펼치는 생활습관이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실제로 위의 질문은 출판사에서 새 식구를 뽑을 때 면접에서 불시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몇 초간 우물쭈물하거나, 제목만 아는 베스트셀러로 답을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최근에 읽은 책이 없다니!

책에 들이는 노력만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책은 누구나 읽어야 하고 책 읽기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책 읽기란 얼마나 어려운 중노동인지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듯 말하지만, 그것은 순 사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책 읽기란 아주 고난도의 능력이 필요한 지적 활동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정신적인 노력뿐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까지 따르는 전인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글자 알갱이와 기호로 가득한 문장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서 하나로 엮는다는 것이 보통 일인가요? 문자와 의미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영화나 TV 화면을 보면 척 하고 아는 것을, 글자와 문장의 나열들만 통해서 그런 영상을 구성한다고 합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책을 읽다보면 한 시간만 지나도 어깨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하품이 납니다. 졸음을 참으며 엎드려 보고 드러누워도 보지만 여전히 여기저기가 결립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이렇게 육체의 부담까지 수반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책 읽기는 좋은 것이라고 이구동성 말하니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책에 들이는 노력 딱 그만큼만 그 좋은 것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귀찮고 괴로운 일을 멀리하고, 유튜브를 즐기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책 읽기가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얻는 즐거움만큼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만화방에서 시작된 나의 책 읽기 습관

내가 책 읽기 습관을 들인 것은 우습게도 어릴 때 들락거리던 만화방에서였습니다. 먼 친척아저씨가

만화가게를 열었는데 꼬맹이인 저만큼은 만화책을 공짜로 마음껏 보게 해줬던 것입니다. 거기서 만화로 그린 세계명작동화, 멋진 청춘남녀의 로맨스, 무시무시한 천하협객의 싸움에 푹 빠져 시간을 잊었고, 덤으로 세계의 문물, 인간의 감정, 중국의 신기한 풍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팔 할은 만화방 덕분이랄까요?

비록 만화일지언정 거기에 몰입했던 경험은 이후에 좀 더 어려운 책, 글자만 가득한 책들에도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갔고, 덕분에 지금은 책을 만드는 출판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내가 책과 더불어 살고, 먹고사는 일마저 책에 의존하게 되기까지는 최소 30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책을 알고 책이란 물건을 이해하기까지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책과 친해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책은 어려서부터 읽기 시작하고, 중간에 끊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읽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서점에 출몰한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학기 시즌에 참고서를 살 때를 빼고는 서점에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점에 출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대체 어인 일이지? 방과 후가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두셋씩 짝을 지어 책들을 들춰보고 사가는 겁니다. 이 유인즉 고양시가 실시하는 '친구야 책방가자!'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지역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1만 5천 원의 도서교환권을 지급해서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놀랄 만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발로 처음 서점에 와본 어린 친구들이 부지기수일 테고, 제 손으로 직접 책을 골라 사본 친구도 대다수였을 겁니다. 고양시가 쓴 예산은 8억 원. 2조 7천억 원인 시 예산의 눈곱조차 안 되는 돈으로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요. 아마 5만 명 학생 중 적어도 1천 명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고, 적어도 1천 명은 자기 용돈으로 다시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올 겁니다.

책을 사려면 온라인서점보다는 내 발로 직접 오프라인 동네서점에 가기를 권합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서점에 책 종류도 훨씬 많고 배송까지 해주니 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모니터와 모바일에 뜨는 책은 사실 몇 종에 불과하고 필요한 책을 찾으려면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비슷한 책들을 쉽게 비교하면서 원하는 대로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네책방이든 대형서점이든 오프라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눈에 책들을 훑어보고, 재미있겠다 싶은 책을 금방 골라냅니다. 책을 들고 만지고 펼쳐보는 재미도 별스럽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책을 들고 뒹굴어야 할 테니까요.

"친구야 책방 가자!" 책방 갈 돈이 없다면 도서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내 손으로 맘껏 책을 고르고 실컷 읽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책에 빠져 있다가 충만한 마음으로 어둑한 밤거리를 홀로 걷는 기분을 느껴보시죠.

동네책방이든 대형서점이든
우리는 한눈에 책들을 훑어보고,
재미있겠다 싶은 책을 금방 골라냅니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전문상담사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한우서 상담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스마트쉼센터의 수석상담사로서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울스마트쉼센터에서 한 상담사를 만나 직업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_ 양지선 기자

포노 사피엔스란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뜻한다. 이제 여가뿐 아니라 학업, 업무까지 모든 일상생활이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일으킨 비대면 상황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더욱 앞당겼다.

문제는 과의존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고, 이는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성인과 비교해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우서 서울스마트쉼센터 수석상담사는 이처럼 스마트폰·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 상담사는 “흔히 ‘중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과의존’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라며 “중독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긍정성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9세에 다시 대학을 진학, 새롭게 진로를 찾으며 상담사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한 상담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직업으로만 평생 살 수 없는 시대다. 앞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와 본인의 강점을 접목해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한 상담사와의 일문일답.

하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전문상담사는 일반 심리상담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

일반 심리상담사로서의 주 업무인 상담·치유 이외에 예방 영역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학교, 기관, 시설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전 국민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부모나 교직원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에 관한 특강도 진행한다. 지자체나 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비대면 상황에 맞게 온라인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스마트쉼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는 ICT 발달로 변화하는 미래 유망직업을 탐색할 기회도 제공한다. AI·코딩교육과 VR체험 등으로 적성을 파악해 진로를 설계하거나 신기술 관련 역량도 기를 수 있다. 이외에 원예, 승마, 숲 체험, 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 등 다양한 대안 활동을 통해 흥미를 확장하도록 돕기도 한다.

둘, 상담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상담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학부모가 먼저 연락해 오거나, 아이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해 신청하기도 한다. 간혹 자녀에게 말없이 신청하시는 학부모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므로 자녀와 먼저 상의해본 후 다시 연락해 주시라고 안내해 드린다.

상담은 성인일 경우에도 보호자와 함께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가 많을수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상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용하고 있는 매체(게임, SNS, 유튜브 등)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에게는 먼저 자녀 세대에게 게임과 SNS의 의미 등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자기조절력을 기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함을 설명하고, 보호자가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자녀에게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원인을 파악해 상담의 방향성을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력과 성공의 경험이 쌓여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관계·학습·진로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지지해 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셋,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과 반대로 어려웠던 점은?

담임선생님의 의뢰로 기관을 찾아왔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기억에 남는다. 평소 게임 외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아이였다. 3년 정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점점 자기 의견이 생기고,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 후 마지막 상담에서는 대학도 가고 싶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미래 계획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했던 아이가 점점 사고가 넓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다. 상담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점점 관계가 좋아질 때도 보람을 느낀다.

힘들 때는 치료에 대해 정형화된 매뉴얼이나 정답을 요구하실 때다. 상담을 몇 번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스마트폰을 뺏는 등 극단적인 방법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 부모님마다 양육방식이 다르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니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 개개인의 심리상담이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한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중 하나일 뿐, 그 속에 숨겨진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넷,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상담을 공부할 때 '자기인식'을 중요시한다. 스스로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지, 또 무엇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평생 살 수 없을 거다. 나의 관심사와 ICT를 접목해 새로운 직종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도 미래 생존방식이라 생각한다.

다섯, 전문상담사로서 미래 직업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능정보사회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에게는 '디지털 시민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윤리의식,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쉽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에 적응하는 속도는 느려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크다. 디지털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앞으로 계획은?

스마트쉼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 가정방문 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대중화되어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과 해소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그 일환 중 하나로, 올해 50여 종의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담사 개인으로서는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두 번을 만나더라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 '내가 힘들 때 이런 위로를 받았지' 하고 생각났으면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제 이름(한우서)을 보고 '한우'라고 놀리곤 한다. 그러면 "선생님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져서 이름이 '우서(웃어)'"라고 정정한다. 이름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더라도 미소가 지어지는 상담사가 됐으면 좋겠다.

TIP BOX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전문상담사

TIP. 1 _____ 하는 일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진단,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예방교육과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상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TIP. 2 _____ 준비 과정

상담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한다.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및 아동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후 상담심리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면 유리하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상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상담 실무경력을 쌓아도 된다. 관련 국가자격증에는 청소년 상담사 1급·2급, 전문상담교사 1급·2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급, 보건교육사 1급 등이 있다.

TIP. 3 _____ 적성 및 흥미

문제 및 원인 파악을 위한 분석력과 타인에 대한 포용력, 집중력 등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상담을 진행하게 되므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며 ICT 등 신기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임상가이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 기획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것이 좋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우리 선생님은 인공지능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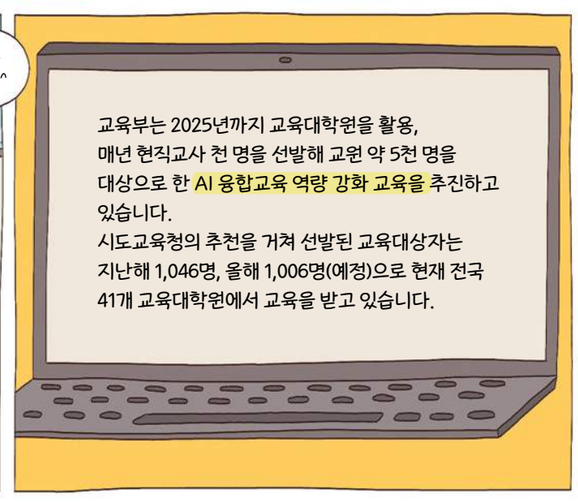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글 _ 신민영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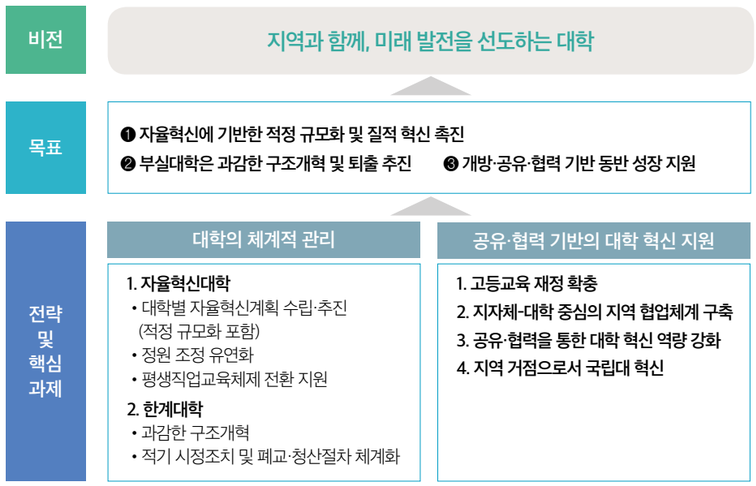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토대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하였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충원 문제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대 위기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을 뛰어넘어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추진 방향



첫째, 대학이 지역 수요, 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 촉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자율혁신 촉진을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대학이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혁신과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권역별로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감축 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더하여 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3단계(개선

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로 집중 관리하며,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 및 청산을 위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폐교 자산 관리 및 조속한 매각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감면 혜택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지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첨단 분야, 교양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토대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학의 혁신을 촉진·지원해 나갈 것이다.

EVENT
꼭꼭 숨어라!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토대로 과감한 OO이 필요한 시기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대학 유형	정책 방향	
자율혁신대학 - 일반재정지원 대학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특성화 강화, 평생직업교육강화 등	• 컨설팅 지원 • 유지충원율 점검 • 정원 조정 유연화 •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한계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위험대학 관리 •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전라북도교육청_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

현장 교사에게 배우는 혁신교육 맛보기

전라북도교육청의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는 예비교사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혁신교육의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오며 예비교사들의 학교혁신 의지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전북대학교 사범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에 다녀왔다.

글_양지선 기자

"인성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수업 외 시간에 주로 이뤄지게 되죠. 아이들은 교사의 행동 양식이나 습관을 보고 배우기도 해요. 학교에 있는 매 순간이 인성교육의 순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일 전북대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에서는 안사을 고산고 교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연 주제는 '학생 이해와 인성·인권교육'. 안 교사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고산고에서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인성교육 전문가로 통한다. 음악 교과 담당인 안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생활 습관 개선을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고, 방과후수업에서는 유도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기르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수업과

66

예비교사들의 마음속에 혁신교육의 씨앗을 심어주는 시간

99



1

연계한 인성교육 사례,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방법 등을 공유하며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생한 인성교육 노하우를 전했다.

아카데미를 수강한 학생들은 현직 교사의 강연을 들으며 학교 현장의 사례를 듣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손우진(3학년) 학생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만 생각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인성교육이 어쩌면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된 후 교과 수업에서도 인성교육을 잘 녹여내야겠다."라고 말했다. 신상재(4학년) 학생은 "인성교육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되면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며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거들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총 5천여 명 수강

전북에 혁신교육이 등장한 건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전히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혁신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혁신교육을 가르쳐야 할 예비교사들이 혁신교육 철학이나 혁신학교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도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학생들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약 5천 명의 예비교사가 아카데미를 수강했다.

강연 주제는 크게 참학력[1] 전북 혁신철학 이해, 학생 이해와 인성·인권 교육,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실천사례, 현장 교사와의 분임토의 등으로 나뉜다.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주제를 신청해서 듣거나, 학과 차원에서 강연 주제를 정하는 등 신청대학별 자율에 맡긴다.

강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혁신교육, 학생자치 활동 전문인 현직 교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했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혁신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실제 교실에 적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등의 피드백을 남기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영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는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혁신교육을 처음 접한 이후 교사가 되고 나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분들을 만난다. 이처럼 예비교사들의 마음속에 혁신교육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교사 실습체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도입된 멘토형 교육실습은 혁신학교 소속 희망교사가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멘토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교사는 아이와 함께하는 관계중심의 생활교육 공동체를 체험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동료 교사와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경험하며, 학교 또는 교실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체득하게 된다. 멘토 교사에게도 현장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은영 장학사는 "그간의 교육실습은 수업 실연이나 행정업무 처리 중심이었는데, 혁신교육의 방향에 맞도록 교육실습의 정체성을 바로잡았다."라고 전했다.

대학 내 혁신교육 강좌 개설 목표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밖에 예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교사는 정규수업 중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다. 올해 전북지역 대학생 247명이 도내 초등학교 51교와 중학교 12교에서 활동한다.

예비교사 대상 한글 문해교육 특강도 이뤄지고 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한글교육 방법과 그림책, 동시를 활용한 지도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의 노하우를 전달한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당 일회성으로 이뤄졌던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차시에 따라 지속적이고 개연성 있는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연 형태도 현장 교사의 강의와 함께 실습과 체험 등으로 다양화한다. 최종적으로는 도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강의 계획에 혁신교육 강좌 개설을 목표로 한다.

오현주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는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재밌고 신선한 강의였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동안 예비교사들은 교과 전공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우지만, 현장의 실천사례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 혁신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교사들의 진정성이 학생들에게도 와닿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2

1 참학력은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일컫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용어

1 지난 6월 2일 전북대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 현장. 안사을 고산고 교사가 '학생 이해와 인성·인권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2 예비교사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모인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이은영 장학사·안사을 고산고 교사·오현주 장학사(사진 위에서부터)

2021 JULY

EDUCATION NEWS

코로나19로 학업성취도·학교생활 행복도 하락

-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마련
- 수도권中·전국 직업계高 등교 확대 추진

9.0%, 3.6%에서 각각 6.8%, 13.5%, 8.6%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학교생활 행복도는 중학교 59.5%와 고등학교 61.2%를 기록, 전년대비 4.9%p와 3.5%p가 감소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가 직격탄이 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와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적응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교생활 행복도 및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흥미, 학습의 욕 등)의 하락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활동, 취업·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학교·학생에게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교육 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의 적극적인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학교밀집도 원칙 조정에 따른 등교 확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학생 비율은 67.5%(6.14.기준)로,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583개교 중 463개교(79.4%)가 전면등교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방역조치 강화 등을 통해 2학기 전 학교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이 낮아질 거란 우려가 공식 지표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한 데 비해 '기초학력 미달'은 증가하고, 학교생활 행복도는 감소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면 수업 확대를 통해 등교일수를 확보하고 전면등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이번 평가는 전체 중3·고2 학생 77만 1,563명의 약 3%인 2만 1,17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했다. 평가 교과는 국어·수학·영어와 중학교 사회·과학을 포함했다.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대비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 영역에서 감소했다. 중3의 경우 2019년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 82.9%, 영어 72.6%였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75.4%, 63.9%로 감소했다. 고2 국어 영역도 같은 기간 77.5%에서 69.8%로 하락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3 국어는 4.1%에서 6.4%로 상승했고, 영어도 3.3%에서 7.1%로 2배 이상 늘었다. 고2 국어·수학·영어는 2019년도 4.0%,

vol.468

EDUCATION NEWS

교육부, '미래교육 추진단' 출범으로 교육 혁신 가속화

교육부가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출범하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에서 현장과의 소통,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교육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은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2023년 6월 7일까지 2년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도 설치·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하여 미래교육전략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 디지털인프라구축팀 등 3개의 자율팀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비교사 AI교육 역량 강화에 3년간 36억 지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를 발표했다. 이 지원 사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의 AI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AI 교육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 결과, 초등 AI교육 유형에 대구교대·춘천교대,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을 중심으로 한 AI 심화교육에 공주대·성균관대, AI 융합 교육 유형에 서울대·이화여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 원씩 총 3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교원 자격 유형별 AI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모든 예비교원의 AI 교육역량 강화 및 현장교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한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AI 교육역량 강화 지원단을 운영해 각 대학의 사업 운영을 돕는다. 국내 AI 분야 전문가가 정책연구 수행, 교육과정 상담, 선정 대학 전문성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표]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가나다 순)

지원 유형	초등 인공지능(AI) 교육 (초등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심화 교육 (컴퓨터교육과 설치 대학)	인공지능(AI) 융합 교육 (컴퓨터교육과 미설치 대학)
선정 대학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Social

비대면 선호하는 아이들, 사회성 기르는 방법은?

글_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사회성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 타인과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지 및 학습 능력, 정서조절 능력, 양심과 도덕심, 현실검증력과 적응 능력은 어린 시절에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수록 더 촉진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은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과 마주하는데,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환경으로는 가정과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사회성 발달에 꼭 필요한 학교라는 공간

학령기의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시작되면서 좀 더 풍부한 경험과 학습을 하게 된다. 행동반경이 사회적, 집단적 환경으로 확대되고 집단생활에 적응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협동심, 양보심, 규칙 준수, 이타심, 배려심 등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는 요소들을 배우게 된다. 또한 경쟁을 통해 노력과 인정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고 익히며 열심히 하는 동기가 채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즉, '학교'는 단순히 학습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소속감을 갖고, 선생님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규칙을 익히는 등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코로나 시대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일 등교를 하지 않게 되자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등교를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들쑥날쑥해지니 밤늦게까지 놀고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경우가 증가했다. 또한 짜증과 부정적 감정의 표출이 증가하였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도 증가했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운동,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 감소하고 대신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SNS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미디어 사용과 더불어, 어른의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을 위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온라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자 또래와의 관계 결핍에 대한 걱정으로 수업보다 오히려 SNS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작년 등교 중단 및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후유증을 남겼다. 등교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고, 안 그래도 친구들끼리 데면데면한 상태인데 종일 마스크를 쓰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 힘들어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라는 곳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하자, 자기 자신의 존재감도 희미해졌다고 느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대면해서 함께 노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되어 버리는 등 관계의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져 버렸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40%가 교실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더 좋다고 대답했는데, 집에 있으면 신체가 편하기도 하지만 대면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의 부딪힘이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대면해서 함께 노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되어 버리는 등 관계의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져 버렸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방법

01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의 일정에 대해 각각의 시간을 가정 내에서 정해놓고 부모가 관리해서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도와줘야 한다. 또한 규칙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노력과 능력이 무관하게 벌어지는 우연한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와 무조건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아이에 대한 배려와 함께 놀이를 진행해야 한다. 아이에게 간단한 청소나 빨래 개기 등의 집안일을 해보도록 하고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을 주는 활동도 아이가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친구를 확보하고, 그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이 있다면 사회성 발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뀐 학업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단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02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시기도 우정, 공감 능력, 갈등 해결능력 등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약이 발생했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또래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며 스스로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공감과 위로의 태도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공감 능력과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사회성이 좋았던 친구들은 SNS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등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반대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는 집에서 게임만 하는 등 사회적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이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자녀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예산, 어미의 품에 안기다

지천이 열매다. 가지 끝에 매달린 바알간 과실이 여름을 알려온다. 붉디붉은 앵두가 비처럼 우두둑 떨어져 내리는 계절, 나뭇잎이 머금긴 햇살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타고 도로를 달린다. 구름은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고 바람은 잔잔히 땅을 쓸어오며 열매는 그 가운데서 나지막이 풍성함을 더해간다. 어미가 젖을 내놓듯 먹거리를 한 아름 안겨 오는 땅, 예산으로 간다.

글 _ 강지영 객원기자

김정희 선생의 시간을 복원한 추사 고택

첫 여정은 포개진 처마가 하늘을 캔버스로 만들어 두고 있는 곳, 추사 고택이다. 추사 고택은 금석학자이자 추사체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 김정희 선생이 어린 시절 기거했던 곳이다. 예산 끝자락, 추사 기념관, 추사 묘지, 화순 옹주 용문, 백송과 더불어 김정희 선생의 혼이 투명한 먹빛으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46점의 전시물로 김정희 선생의 시간을 복원해 둔 기념관으로 들어선다. 금석학자로의 치밀한 궁구(窮究) 흔적과 서예가로의 예술혼이 깃든 작품으로 채워진 전시실 출구 앞,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수덕사



1 추사 김정희 고택
2 예산 용궁리 백송

열 개의 벼루를 밑창 내고 천 자루의 붓을 짧게 만들었다는 추사의 말이 발을 붙든다. 탄식이 인다. 세대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작품에 불어 넣었을 뼈를 깎는 노력이 가슴을 두방망이질한다.

선생의 묘를 앞두고 고개를 숙인다. 바람이 푸르디푸른 무덤을 부드럽게 매만지고 간다. 앵두가 쏟아져 내리는 길목 옆 우물을 지나 사랑채와 안채, 사당으로 둘러싸인 고택으로 들어선다. 마른 우물에 물이 들게 하며 세상에 난 추사의 고택이어서일까.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먹 냄새가 번져오는 듯한 착각이 인다. 지붕 아래 자리 잡은 제비집이 벼루이기라도 한 듯, 활공을 거듭하는 제비의 몸짓이 붓질이 되어 눈에 담긴다. ㄱ자 사랑채와 ㅁ자 안채가 포개져 묘한 공간감을 연출하는 고택을 둘러 사당 앞에 선다. 내려 감은 두 눈에 검은 물이 맺히는 듯한 감상을 물리고 되돌아 나와선 곳에서 세한도를 본다. 유배 시절 제자이자 문우였던 이상적 선생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작품이다. 사제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까, 대가의 손길을 기리는 열여섯 명사의 시와 제자들의 배관기(拜觀記)와 찬문(讚文) 때문일까. 나무도, 집도, 글귀도 모두 비어 있는데 차디차다는 세한도에서 충만과 따스함이 넘쳐흐른다.

백송에 담긴 시간의 흐름

한복의 겹침을 닮은 처마의 닿음이 묘한 울림을 빚어내고 있는 고택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정수리 위에 파랗고 하얀 도화지가 놓여 있다. 눈동자를 먹 삼아 기념관에서 본 글귀를 찍어본다. 인천안목 길상여의(人天眼目 吉祥如意). 사람과 하늘이 살펴주어 뜻과 같이 잘 될지어다. 마른 대지 같은 마음에 필요했던 한 마디를 뱉어두고 숨을 고른다. 턱까지 차오른 숨이 비로소 바닥으로 내려진다.

꺾이고 겹쳐진 처마는 제비의 날갯짓일 터. 김정희 선생이 중국에서 가져와 심었다는 백송을 만나러 간다. 만리타국에서 귀한 백송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학식과 덕망이 높았다는 뜻이리라. 허연 자태를 뽐내기까지 긴긴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백송의 둥치에서 세월을 본다. 비워 채워진 구멍에 삭인 세월을 덧대며 김정희 선생의 증조모이자 조선 왕실 유일한 열녀인 화순옹주홍문을 둘러 나온다.

예술가의 숨결 어린 수덕사와 수덕여관

수덕사로 방향을 잡는다. 열매 가득한 예산의 길목은 곳곳이 풍요롭다. 이제 막 모심기를 끝낸 땅에서 누런 들판을 보는 것은 서슴없이 먹거리를 내놓는 예산의 품에 어미의 젖줄 같은 넉넉함이 깃들어 있는 까닭이다. 수덕사 초입, 선(禪) 미술관에서 이응노 화백의 그림 몇 점으로 눈요기를 한 후 수덕여관으로 향한다. 수덕여관은 나혜석 화백과 승려 일엽, 이응노 화백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다. 무엇하나 수월한 게 없는 게 인생이기는 하지만, 몰아치는 생에 쫓겨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내달렸던 예술가들의 사연 많은 이야기가 귓가를 지나간다. 초가지붕 위 이름 모를 잎을 지나는 바람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살아내는 일이 어쩌면 생각보다 무심한 것이기 때문일지도. 꾹 다문 입에 살아갈 날을 머금고 대웅전으로 향한다.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은 건립 연대가 확실한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법당 안에는 보물로 지정된 삼존불상이 모셔져 있다. 건축 양식의 변곡점을 보여주기 때문일까. 단청을 하지 않아서일까. 대웅전에서 번져오는 소박한 세련미가 찰랑거리며 가슴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수덕도령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지은 절이 불타 없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불심을 찾으며 완성은 하였으나, 여인은 사라지고 버선 꽃만 있더라는 창건 설화가 깃든 관음보살상을 눈에 담고 절을 벗어나는 길, 길가에 놓인 오디가 선물이 되어 마른 입을 채워준다.

윤봉길 의사의 희생을 기리다

마지막 여정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의사가 영면한 나이 스물다섯.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날을 꿈꿨던 청춘이 아리고 쓰려 멈칫하고 섰다.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굳어 있는 게 스물다섯 짧은 생에 보낼 수 있는 최선의 애도라는 사실에 속이 무너져 내린다. 걸음 마디마디에 도시락이 보이고 시계가 아른거리고 결박된 의사의 모습이 서린다. 선조들이 목숨을 다해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에 너는 과연 당당할 수 있는가. 전시실을 나와 이른 충의사에서 무성(無聲)의 편지를 받는다. 곳곳에 숨겨둔 선물로 여행객을 두 팔 벌려 맞아주었던 어미의 땅 예산이 등을 다독이며 말한다. 지난날 희생이 무색해지지 않게 앞을 향해 달려야 할 때라고. 그들이 그러했듯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추사 고택을 지키고 있던 해시계와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시계가 겹쳐진다. 모양은 다르나 내일이라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두 시계를 가슴에 품는다.



‘부캐’ 열풍, 여러 가면을 쓰는 사람들

글 _ 김종엽 강릉원주대 초빙교수



> 개인은 멀티 페르소나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멀티 페르소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부캐’로 표현되는 멀티 페르소나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안착했다. 사회적 현상은 대중의 공감으로 꽃을 피운다. ‘본캐(본래 캐릭터)’와 ‘부캐(부캐릭터)’의 구별은 원래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출발한 용어였다. 그 후 유명인의 손을 타면서 생활 부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마미손, 유산슬, 린다G 등은 부캐 열풍을 앞에서 이끌었다. ‘부캐 유니버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그 위세가 당당하다. 살아 있는 언어란 사회현상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기에 신조어의 등장이 부담스럽지는 않다.

부캐 열풍은 현대인의 당연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여느 때처럼 거품처럼 사라질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까? 멀티 페르소나는 두 질문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

첫째, 멀티 페르소나는 현대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단면이다.

시대가 달라졌다. <공감의 시대>의 저자 리프킨(J. Rifkin)의 표현에 따르면, 현대는 집단 공감을 나누는 시대이다. 현대인은 자신이 직접 쓴 대본의 배우가 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20억의 다른 배우와 함께 글로벌 무대를 공유한다. 작품의 배역에 따라 자유롭게 변신하는 페르소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배우 의식은 경제 분야의 변화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상황)’의 전성시대를 예고한다. 노동 개념의 무게중심이 본캐 위주인 직업에서 역량 중심인 프리랜서로 이동할 것이다. 각 페르소나는 본업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성과 프로젝트로 세분화된다.

둘째, 부캐 열풍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로 그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일탈은 아니다. 생활 무대가 넓어지면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또 다른 사회적 코드로 등장하였다. 열정, 노력, 용기, 긍정적 마인드로 무장한 본캐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베스트셀러 도서 주제가 성공, 자기계발, 사회적 능력에서 힐링, 미니멀리즘, 워라밸로 이동한 배경이다. 멀티 페르소나, 즉 다양한 부캐로 활동하는 동안만큼 우리는 본캐로부터 오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SNS에서 다양한 계정을 만들어 요리, 음악, 반려동물 등 타인과 작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지친 본캐를 위로한다. 부캐는 본캐에게 회복탄력성을 부여하는 은밀한 휴식처가 되었다.

셋째, 멀티 페르소나는 현대인의 정체성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G. Deleuze)는 특정 가치와 삶의 방식에 포획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는 현대인을 ‘노마드’, 즉 도시의 유목민으로 표현한 바 있다. 도시어부, 도시농부, ‘차박 여행(차에서 숙식하며 즐기는 캠핑)’까지 유목민의 코드가 확실히 현대어로 부활하였다. 자신의 경험과 주관만을 고집하는 고독한 주체는 ‘꼰대



정신'을 벗어나기 어렵다. 꼰대의 문제는 생각의 고루함에 있지 않다. 외로운 주체가 정박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자신이 세운 위계질서에 의해 고착되어 있다. 그 속에서 타인에게 특정한 질서를 강요한다. 폭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형의 '중심주의'는 꼰대 정신의 발현이다. 그 대상이 인간일지라도 말이다. 꼰대 정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등장할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는 이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대중의 공감을 통해 꽃을 피우고 그 화려함을 연장한다. 그동안 중심부에 눌려 주변부에만 맴돌던 삶의 자그마한 자락이 척박한 땅을 뚫고 피어난 형태라 그 꽃도 퍽 아름답다. 멀티 페르소나가 자아의 분열이 아니라 사회적 매력으로 지각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초라하게 지는 날도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당연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때이지 않을까.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에 어원을 둔 용어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사회적 가면은 중요하다. 그러나 페르소나가 선택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폭은 무제한이 아니다. 본캐가 자아의 전부가 될 수 없듯, 부캐도 역시 그러하다. 사회적 가면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가장 큰 유혹은 아마도 대중의 관심, 즉 흥행이 될 것이다. 클릭 수에 목을 매는 기자, 구독자에 목숨을 거는 유튜버, 유권자의 표에 인생을 거는 정치인, 모두 특정 페르소나에 빙의된 결과이다. SNS 중독, 디지털 허언증, 인정 강박증은 좀비 페르소나이다.

개인은 멀티 페르소나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멀티 페르소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 차이를 놓치면, 삶이 그대를 속여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게 된다. 페르소나는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상실의 시대는 멀티 페르소나의 어두운 이면이 될 수 있다. 페르소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자존감 하락, 공황장애, 우울감은 종종 정체성의 빈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인생은 연극과도 같다

근대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선견지명이다. 다양한 배역을 맡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부캐 열풍이 지속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각자의 꿈이 특정 페르소나에 맞춰지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연극의 생명이 작품성에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시간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매 순간 우리는 타인과 페르소나로 만난다. 사회적 관계가 곧 페르소나와의 만남이다. 그러나 "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현대 분석 심리학자 칼 융(C. Jung)의 지적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들릴 뿐이다. 우리에게는 그 관계맺음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서가 필요하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캐가 자신의 방식으로 시간의 바다를 건너는 각자의 권리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HONORARY REPORTER

FOCUS 01

나도 그림 그릴 거예요!

문승욱 명예기자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지원으로
협동벽화 프로젝트 호응 얻어

장흥 부산초등학교(교장 신봉휴)가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정찬)의 지원으로 낡고 퇴색된 공간을 협동벽화 프로젝트를 통해 동화 세상으로 펼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머무는 공간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면서 2020학년도부터 시작한 협동벽화로 인한 공간의 변화에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올해에는 행복한 공간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밖 공간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등굣길의 어둡고 칙칙한 교문 앞 담장은 화사하고 밝아졌다. 유치원 현관 맞은편은 아동 눈높이에 맞춰 동화 세상이 펼쳐지고 바닥은 꽃길로 그려져 학생들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 바뀐 환경을 보고 1학년 담임 교사는 "학교의 벽과 바닥의 묵은 때가 항상 안타까웠으나 지금은 단장이 잘되어서 학교 이미지가 밝아졌다."라고 말했다. 4학년 학생은 "아무것도 없던 벽에 그려진 고양이와 새가 너무 귀여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실 또한 담임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카페형 창가와 교실 뒤 공간은 푹신한 매트와 텐트로 구성하는 등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봉휴 교장은 "학생들의 행복 교육에 도움을 아끼지 않는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더욱더 즐겁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FOCUS 02

“입학 100일을 축하해!”

1-6학년 입학 100일 축하 비대면 띠앗활동

이윤정 명예기자

지난 6월 9일 세종 연봉초등학교(교장 이종현)에는 ‘입학 100일 축하행사’가 진행되었다. 1학년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아직 초등학교가 낯선 1학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띠앗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띠앗활동이란 일종의 멘토-멘티 활동으로 6학년-1학년, 5학년-2학년, 4학년-3학년을 짝을 짓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선배 학년이 후배 학년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1학년의 학습을 띠앗 학년인 6학년 학생들이 활동을 함께 도와주는 형태의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에는 학년 간 대면 활동을 줄이고 최대한 비대면 형태로 띠앗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하였다. 입학 100일 축하 띠앗활동으로 6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1학년 교실에 찾아와 1학년 학생들을 위해 직접 ‘입학 100일 축하 포토존’을 꾸며 제작해 주었으며, 본인들이 직접 만든 1학년-6학년 커플 그립톡(스마트폰 뒤에 부착한 뒤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는 원 모양의 거치대)을 축하편지와 함께 선물하였다. 이에 1학년 학생들은 6학년 학생들에게 백일떡 나눔과 감사편지를 직접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00일이 된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생활과 유치원 생활과의 가장 다른 점으로 놀이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점과 생활 중 간식 먹는 시간이 없다는 점 등을 말했으며, 특히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른 점으로 손꼽았다. 반면 초등학생이 되어 좋은 점은 처음에는 잘하지 못한 것들을 점점 혼자 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똑똑해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6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입학 100일 축하 띠앗활동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서 6학년이 되면 1학년 동생들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6학년 선배들에게 포토존을 예쁘게 꾸며줘서 고맙고, 행복했다는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입학 100일 축하 띠앗활동에 참여한 6학년 학생들은 “입학 100일 띠앗활동을 준비하며 1학년 동생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하였고,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잘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1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목소리를 크게 발표를 하면 좋고, 복도에서 뛰지 않는 등 학교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6학년 때는 공부가 많이 어려워지니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와 같은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띠앗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한 1학년 담임 윤영란 교사는 “연필도 제대로 쥐지 못했던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채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100일의 기적이 아닐까 싶다. 한편, 코로나19로 학생 간 거리두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교우관계를 통한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놀이활동을 하지 못하고 개별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6학년 담임 엄수정 교사는 “6학년 학생이 어느덧 자라 1학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노하우를 전해주는 등 선배의 의젓한 모습을 보여 기특하며, 코로나19로 직접 만나 교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2학기에는 1학년이 추천하는 그림책을 6학년이 함께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독서 띠앗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6학년의 졸업 축하를 위한 1학년들의 띠앗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학년 간 띠앗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 간 긴밀한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27.6시간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주 평균)



'2021 청소년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10대)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27.6시간으로 전년 대비 10.0시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8년(17.8시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온 이후 2019년(17.6시간)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시 급반등한 것이다. 인터넷 이용목적은 교육·학습(99.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가활동(99.1%), 커뮤니케이션(98.5%), 자료 및 정보 획득(95.2%) 순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이 평균 2~4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3%는 과의존 위험군이며, 청소년의 경우 35.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아동은 27.3%로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아동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과의존 위험에 취약했으며, 유아(3~5세)보다는 아동(6~9세)이, 외벌이 가정보다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청소년의 경우, 반대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과의존 위험에 취약했으며 학령별로는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순으로 과의존 위험에 취약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한 경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도한 이용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유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내리 GO, 더 큰 세상 누리 GO!
Be on the Phone? Beyond the phone!

R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 (Problem recognition)

- **스마트폰 과의존**, 신체·정신건강,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안전에도 **해롭습니다.**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모든 연령 중 청소년(만 10-19세)이 가장 높습니다.

E 사용 상태 점검 (State check)

- **평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자신의 사용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 스마트폰 과의존 점검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 과의존이란?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이용

S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 (Suggest alternatives)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자신만의 조절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콘텐츠만 이용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동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T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 (Connect)

-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예절'을 지킵니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8).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
- European Commission(EU, 2017). The 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Citizens.

*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참고
-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은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